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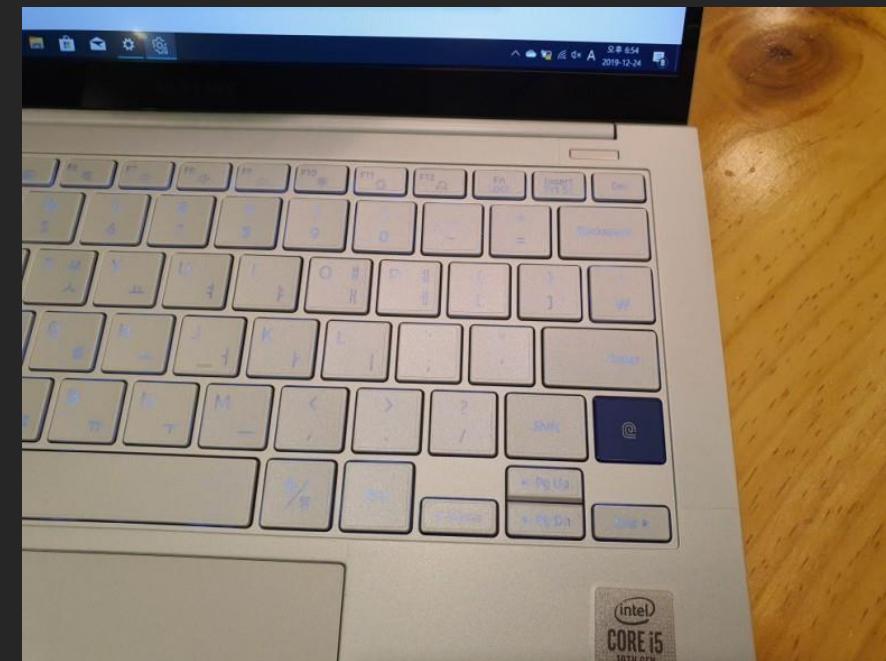
기계식 키보드 입문기

주의 사항

- 기계식 키보드는 총 두 개만 써본 키린이입니다.
—전문 용어 잘 모릅니다

기계식 키보드 입문 계기

- 메인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키보드가 느낌이 없어서
(키 높이도 낮고, 키스킨 없이도 소리도 잘 안 남)
- 피시방에서 쓰는 청축 키보드 소리가 좋아서
- 멘토링 해주셨던 선배분의 키보드 소리가 좋아서



기계식 키보드 축의 종류

- 청축 : 손맛이 확실하고 타건음이 크다. 경쾌한 소리. 갈축 적축보다 더 무거운 키압
- 갈축 : 조용한 청축, 정갈한 타건감 (청축보다는 소리가 작지만 적축보다는 시끄러움)
- 적축: 걸리는 느낌 X. 크지 않은 타건음과 타건할 때 부드러움



처음 산 키보드

- 콕스 사의 Cox ck87 크림블루 갈축
- 피시방에서 쳤던 청축은 오래 치면 손이 아팠음
- 청축은 너무 시끄러울 것 같고, 타건감은 느껴보고 싶어서 갈축 선택
- 이때 당시 예산이 얼마 없었던 관계로 저렴한 제품 구입
- 스페이스바를 칠 때 스프링 소리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

가격대에 비해서는 준수한 타건감과 타건음이 마음에 들었음.



두 번째로 산 키보드

- 토체티 저소음적축 키보드
- 갈축이 생각보다 손이 아프고 오래 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
- 저녁이나 밤에 주로 사용하는데 소음이 너무 컸음
- 코딩용으로 하나 장만
- 확실히 소리는 덜 나지만 가끔 스프링 소리가 날 때가 있음
- 바밀로 매화/고래 와 고민했던 제품 중의 하나
- LED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



텐키와 텐키리스

- 어쩌다보니 계속 텐키리스를 사게 되었음. (노트북 크기에 맞고 책상 크기가 좁아서)
- 정말 취향을 타는 부분이지만 텐키보다는 텐키리스 제품이 많은 것 같음.
- 텐키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서 텐키리스 선택

기계식 키보드 총평

- 한 번쯤 사볼만 한 사치품(?) 인듯
- 체리, 레오폴드, 앱코, 키크론, 바밀로 등 여러 회사가 존재하며 다양한 종류의 키를 판매함.
- 다음에는 광축을 사보고 싶음.

COX CK87 블랙 게이트론 LED 게이밍 기계식

키보드(일반) / 유선 / 87키 / USB / 용도: 게이밍 / 기계식 / 스위치: 게이트론 /
키압: 50g / 텐키리스 키보드 / 동시입력: 무한 / 1ms 응답속도 / 윈도우 키 잠금 /
전체 키 잠금 / 스텝스컬쳐2 / ABS / 이중사출 키캡 / 한글 정각 /
단색 백라이트 / 직조(패브릭) 케이블 /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/ 금도금USB단자 /
키캡 리무버 / 청소용 브러쉬 / 361mm / 145mm / 47mm / 935g / 1년 보증

